

## 차 례

### 세인을 경악시키는 피뢰군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

- 극도의 염전, 염군풍조가 빚어낸 인권참사.....(3)
-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인권유린전시장.....(5)
- 피뢰군상층부에 의해 더욱 성행하는 인권범죄 .....(8)

## 세인을 경악시키는 괴뢰군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실상

남조선인권대책협회 조사통보

최근 남조선에서는 괴뢰육군 2작전사령관놈의 사병학대행위가 폭로된 것을 계기로 군부내의 처참한 인권유린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더욱 세차게 터져나오고있다.

사병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이번 사건은 괴뢰군에서 만연하고있는 심각한 인권유린행위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당국이 《병영문화》니, 《강한 안보》니 뭐니 하며 《국방개혁》에 대해 떠들어대고있지만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여날수 없듯이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이며 온갖 범죄의 서식장인 괴뢰군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범죄를 절대로 막을수 없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최근 괴뢰군내의 인권유린행위의 참혹한 실상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해 그 일단을 묶어 조사통보를 발표한다.

## 극도의 염전, 염군풍조가 빚어낸 인권참사

미국의 식민지고용군인 남조선피뢰군내에서는 절망감과 공포의식, 염전, 염군풍조가 항시적으로 만연되고있다.

광기를 띠고 감행되고있는 피뢰호전광들의 북침전쟁소동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있는 그 고질적병폐는 오늘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인권참사를 빚어내고있다.

최근 피뢰군인권센터는 2016년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성공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있는 《대북경계태세》로 하여 24시간 비상대기상태에 처해있는 피뢰군장병들의 정신육체적상태가 극한에 이르고있다는 자료를 발표하였다.

대결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인 전쟁불장난소동에 매일같이 시달리며 지칠대로 지친 피뢰군사병들의 정신육체적피로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 신경이 예민해진 장교들과 하사관들, 사병들속에서는 서로 폭행하고 지어살인까지 하는가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있다.

그 참혹상은 전선지대 피뢰군부대들의 실태를 놓고서도 잘 알수 있다.

올해에 들어와 남조선강원도에서만도 1월 26일 고성일대에서 사병이 나무에 목을 매달고 자살한 사건과 4월 10일 해안가에서 일어난 하사

관의 자총사건, 5월에 철원일대에서 신입사병의 시체가 발견되고 화천군의 한 부대에서 사병의 자총사건 등이 발생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살참극이 전선지대에서 일어나고있다.

지난 8월 9일에도 경기도 파주시의 전방부대에서는 사병이 총상을 입고 숨진채 발견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다.

지금 전선지대의 피뢰군사병들은 《복을 감시하면 뭘 하나. 전쟁터는 여기에 있는데...》라며 당국의 전쟁불장난소동에 로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과 언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찍하면 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제대시켜달라고 애원하고있다.

비단 전선지대뿐이 아니다.

피뢰군부대 어디서나 전쟁은 당국과 국방부나 할 일이고 자기들은 목숨이나 부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면서 전선지대에 대한 병역을 태공하는것과 같은 염전, 염군풍조가 만연하고있다.

피뢰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현재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병을 호소하면서 제대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피뢰군수는 무려 8만 5 000여명에 달하고있다고 한다.

특히 자살이나 총기란사 등 돌발적인 사건을 일으킬수 있는 《관심 및 위험사병》이 룽군에만도 8만여명을 헤아려 피뢰군은 말그대로 정신병원을 방불케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피퇴군에서는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림병장》이라는 말이 더욱 파다하게 퍼져가고있다.

이 말은 남조선에서 《전과사단》, 《사고사단》, 《기피 1순위》로 불리워지고있는 전선동부의 피퇴륙군 22사단에서 몇해전에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생겨난 말이다.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폭행으로 달래는 상관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생죽음을 당한 윤일병타살사건과 여러명의 상관과 동료들을 사살한 림병장총격사건은 피퇴군사병들에게는 개죽음을 당하든지 살인자가 되든지 두길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퇴패당의 북침전쟁소동이야말로 군부내의 참혹한 인권유린을 산생시키는 악폐로서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 한 피퇴군안에서 인권유린행위는 언제 가도 근절될수 없을것이다.

## 강압과 폭력이 란무하는 인권유린전시장

남조선피퇴군은 양키식문화가 판을 치는 썩어빠진 식민지체제하에서 돌아난 독버섯과 같은 존재이다.

피퇴군안에는 잔인성과 포악성을 군인의 첫째가는 기질로 삼는 미국 식병영문화가 깊이 침습되어있으며 폭력은 군을 유지하는 기본수단으로 되고있다.

피뢰군의 치욕의 력사가 그대로 군부내의 치떨리는 인권유린의 력사로 이어져왔으며 오늘도 피뢰군은 《허가받은 인권유린장》으로 남조선 사회 각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최근 피뢰군내에서 감행되고있는 참혹한 인권유린행위는 그 뚜렷한 증거이다.

피뢰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군부내에서는 철갑모를 씌운 다음 의자로 머리를 내리치기, 방바닥을 기여다니며 개흉내를 내기, 바닥에 뺄아놓은 가래침훅아먹기, 발가벗기고 모욕주기 등 인면수심의 온갖 악행들이 백주에 공공연히 감행되고있다.

지난해 7월 피뢰해병대에서 일어난 《식고문》사건이 공개되었는데 악마로 길들여진 상급들은 신입사병의 몸무게를 90kg으로 늘인다고 음식물을 강제급식시키고는 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그의 부모들은 《몸무게를 90kg으로 만든다며 그런짓을 했다니 우리 아이가 집집승인가.》고 항변하였지만 군부깡패들은 그 사병을 다른 부대로 조동시켜놓고 또 온갖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피뢰국회 법제사법위원회소속 한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데 의하면 최근 피뢰군에서는 나홀에 한명씩 사망자가 발생하고있으며 그중 70%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라고 한다.

상관들이 못생긴 얼굴을 바로잡아준다며 면상을 후려치고 눈길이나 주었다고 폭행하고 코를 곤다고 하여 기합을 주고 세면장에서 먼저 나

간다고 하여 그의 몸에 오줌을 갈기고 심지어 날씨가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발과 주먹을 휘둘러대는것은 피뢰군부대들에서 레상사로 되고있다.

이런 정신육체적고통을 강요당하는 피뢰군사병들이 자살의 길을 택할 수밖에 더 있겠는가.

피뢰군생활을 하고있는 여성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장교와 사병을 막론하고 심심풀이, 성노리개로 간주되고있으며 때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성희롱과 성폭행에 시달리고있다.

최근 피뢰군인권센터가 100명의 여성사병들과 장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라는것을 진행한데 의하면 5명중 한명이 성적학대를 당하였다고 한다.

지난 5월 24일 피뢰해군의 한 여성장교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병실에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치욕속에 몸부림치다가 자살의 길을 택하는 여성들 또한 이루 헤아릴수 없다.

사상최악의 패륜패덕이 살판치는 피뢰군을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칠창없는 수용소》, 《불구제작소》, 《시체제조소》라고 저주를 퍼붓고있으며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악마같은 곳에 갈수 없다.》는 항변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병역기피는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뢰당국은 《군기강》이라는 미명하에 온갖 반인륜적인 폭행들과 악행들을 합리화하고 적극 비호해주고있으니 피뢰군내에서 인권문제가 해결될리 만무한것이다.

## 피뢰군상층부에 의해 더욱 성행하는 인권범죄

오늘 남조선피뢰군에는 일확천금을 노린 군부고위층들의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군내의 마피아로 불리우는 《군피아》가 활개치는 속에 인권유린행위가 더욱 성행하고있다.

피뢰군부의 고위층들이 출신과 인맥을 기본으로 피뢰군내에 여러 사조직들을 만들어놓고 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돈날가리를 쌓아올리며 부정부패를 일삼고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부정부패행위는 반인륜적악행을 동반하게 되는 법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커다란 사회적비난을 불러일으키고있는 피뢰륙군 2작전사령관놈과 그 녀편네가 감행한 공관병《갑질》사건을 통해서도 이를 잘 알수 있다.

《갑질》은 봉건사회에서 량반관료들과 부자들은 《갑》으로, 권세없고 돈없는 백성들은 《을》로 분류하고 《을》에 대해 횡포무도한 착취와 전횡, 온갖 천대와 멸시를 일삼는 《갑》의 부정적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써왔다.

그런데 망조가 비긴 남조선사회에서 이러한 《갑》과 《을》의 불평등관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권세있고 돈있는자들의 횡포가 만연되면서 《갑질》이란 말이 극심한 빈부격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온갖 악행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장성이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피뢰군장성이 되면 전속부관과 운전사, 서류정리와 음료심부름을 하는 당번병, 청소를 맡은 공관병, 료리를 맡은 조리병 등을 두고 막대한 혈세로 배를 불리우며 특별대우를 받고있다.

이러한 특전, 특혜에 썩들대로 썩든 2작전사령관놈과 그 녀편네는 당번병, 공관병, 조리병을 비롯한 사병들을 하인처럼 여기면서 어느때든지 호출할수 있게 손목에 전자신호팔찌까지 채워놓고 수시로 불리대어 빨래와 다림질, 위생실청소 등 온갖 잡일을 다 시키다 못해 안락의자와 바닥에 떨어진 손톱, 발톱까지 치우라고 강요하였다.

지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한다고 하여 사병들에게 썩은 과일이나 음식찌꺼기 같은것을 집어던지면서 마구 욕지거리를 퍼붓곤 하였으며 그 고통을 참을수 없어 일부 사병들은 자살까지 시도하였다.

특히 작전사령관놈은 《택부인은 려단장급이므로 례의를 갖추라.》고 호령질을 해대는가 하면 불만을 품은 사병들에게 가혹한 징벌을 가하곤 하였다고 하니 피뢰군상층부의 사병학대행위가 어느 정도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얼마전에는 피뢰륙군 39사단장이란자가 한밤중에 술상을 차리라고 호통치고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하여 사병을 구타하였으며 담배를 피울 때 재털이를 들고있게 하는 등 기괴하고 야만적인 짓거리들을 해

대여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군인사놀음을 벌려놓고있지만 물망에 오른 인물들은 너나없이 사병사망사건진상을 은폐하려다가 덜미를 잡히고 군수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는 등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특등범죄자들인것으로 하여 사회 각계에서는 《군인사는 도처가 지뢰밭》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괴뢰군내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자리에 있는자들이 전부 이 꼴이니 남조선에서 군인권문제해결은 사상루각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이 아니다.

더욱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것은 괴뢰군부의 고위층들이 극악한 인권범죄를 저지르고도 그것을 가리워보려고 비렬하게 책동하는가 하면 군부내의 인권유린행위들을 묵인조장하고있는것이다.

지난 7월 각종 폭행에 시달리던 괴뢰육군 22사단의 한 사병이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다가 《매일 눈을 뜨는것이 괴롭고 매 순간 모든것이 끝나기를 바랄뿐》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7층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괴뢰육군참모차장이란자의 참가하에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는 천만뜻밖에도 진상규명이 아니라 《언론동향과 악 및 대응》과 《유가족들에 대한 통제》 등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꾀

꿈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피뢰군내에서 자살사건들이 련발하고 그때마다 피뢰국방부 장관이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요 하는자들이 사과놀음도 벌리고 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진상규명을 쫓쳐대고있지만 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기막힌 악순환만 되풀이되고있는것은 인권을 참혹하게 유린하는 병폐를 바로잡아야 할자들이 오히려 사태의 진상을 은폐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인권유린을 비호조장하고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리명박, 박근혜와 같은 천하악귀들은 2006년에 설립된 《군의 문사진상규명위원회》까지 해체하고 피뢰군내에서 발생하는 온갖 인권유린범죄들을 덮어버림으로써 남조선민심의 분노를 고조시켰다.

지금 이 시각도 남조선에서는 원인모르게 죽어간 자식들의 시신인수를 거부하고 진상을 밝혀낼것을 요구하는 피해자가족들의 절규가 구천에 사무치고있으며 수많은 영령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랭동고에 싸늘한 시체로 누워 진상규명의 날만을 고대하고있다.

\* \* \*

지금 남조선당국은 제 집안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바로잡을 대신에 우리 공화국의 《핵문제》,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고있으며 푼수

에도 맞지 않는 《국방개혁》놀음을 벌여놓고 동족대결소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미국의 전쟁하수인, 극도로 타락하고 취약한 오합지졸의 무리인 남조선피뢰군을 내세워 막강한 자위적핵억제력을 갖춘 세계최강의 강군과 맞서보겠다는것이야말로 돌부처도 포복절도할 추태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북침전쟁광기를 고취하면서 수많은 청장년들을 외세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그들의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고있는 극악한 대결광신자, 인권유린범죄자들을 결단코 용서치 않을것이며 만고최악의 대가를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14일

평 양